

2019년 4월 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무역협상 낙관에도 불구하고 상승 축소 반도체 업종이 상승 주도했으나, 산업재 및 일부 업종 매물 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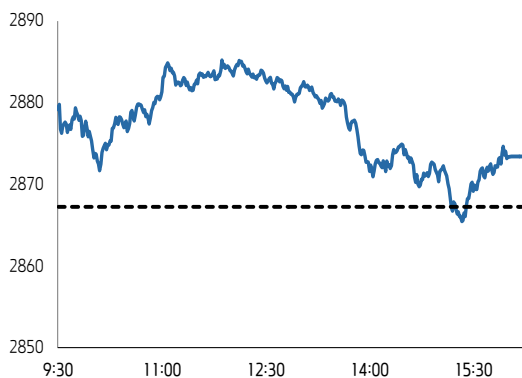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반도체 업종 강세 및 무역협상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유입되며 상승 출발. 특히 반도체 업종이 이를 주도. 그러나 오후 들어 미-중 무역협상이 시장에 많은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관련 수혜종목들이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반납 (다우 +0.15%, 나스닥 +0.60%, S&P500 +0.21%, 러셀 2000 +0.49%)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업종이 상승(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27%). 한편, 노무라는 반도체 매출이 올해 10% 감소가 이어지겠지만, 2020~2025년까지 7~9% 반등을 할 것이라고 발표. 더 나아가 인텔(+2.02%)에 대해 AI 및 자율 주행으로 마진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65 달러 제시했으며, AMD(+8.49%)도 급속한 환경 개선에 따른 매출 증가를 이유로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3 달러를 제시하며 관련종목 상승을 이끔. 이런 가운데 대만의 TSMC가 7nm 칩 주문이 증가해 공정 가동률이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도 긍정적인 영향. 이를 토대로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을 높였다고 평가.

한편,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커들로 위원장이 “중국과 무역문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낙관론에 힘을 실어 줌.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무역협상 타결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미 증시가 오후 들어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무역협상 타결 수혜업종인 농장 관련 회사, 산업재, 소비재 업종이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반납. 여전히 중국이 대두와 천연가스 구매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진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양보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믿음만한 집행 매커니즘이 중요한 데 중국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결국 시장은 무역협상 이외에도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실적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 실제 오늘 미 증시 상승 종목 대부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업종 및 종목이었음이 이를 반증.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203.27	+1.20	홍콩恒生	29,986.39	+1.22
KOSDAQ	749.30	+1.32	영국	7,418.28	+0.37
DOW	26,218.13	+0.15	독일	11,954.40	+1.70
NASDAQ	7,895.55	+0.60	프랑스	5,468.91	+0.84
S&P 500	2,873.40	+0.21	스페인	9,487.80	+1.33
상하이종합	3,216.30	+1.24	그리스	749.40	+0.80
일본	21,713.21	+0.97	이탈리아	21,755.88	+1.0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반도체 업종 강세

인텔(+2.02%)과 AMD(+8.49%)는 노무라가 매수 의견을 발표하자 상승 했다. NVIDIA(+3.07%)도 노무라가 중립의견을 발표 했으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TI(+2.24%), 마이크론(+3.44%), AMAT(+3.51%), 램리서치(+3.95%) 등도 수요 증가 기대감과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동반 상승 했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보잉(-1.54%), 캐터필라(-0.66%), 3M(+0.47%)등 산업재와 코카콜라(-0.84%), 펩시코(-0.10%), P&G(-0.06%) 등 소비자재 업종, GM(+1.53%), 포드(+1.33%) 등 자동차 업종은 미-중 무역협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 장 후반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거나 상승분을 반납했다.

담배회사인 알트리아(-4.78%), 필립모리스(-2.50%)는 FDA가 전자담배로 인한 발작을 경험한 사례를 조사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급락 했다. 엑손모빌(-0.59%), 코노코필립스(-1.27%), EOG리소스(-2.21%)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부진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24%	대형 가치주 ETF(IVE)	+0.26%
에너지섹터 ETF(OIH)	-1.48%	중형 가치주 ETF(IWS)	+0.23%
소매업체 ETF(XRT)	+0.56%	소형 가치주 ETF(IWN)	+0.26%
금융섹터 ETF(XLF)	+0.30%	대형 성장주 ETF(VUG)	+0.35%
기술섹터 ETF(XLK)	+0.81%	중형 성장주 ETF(IWP)	+0.71%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41%	소형 성장주 ETF(IWO)	+0.74%
인터넷업체 ETF(FDN)	+0.62%	배당주 ETF(DVY)	+0.08%
리츠업체 ETF(XLRE)	-0.11%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4%
주택건설업체 ETF(XHB)	+0.75%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0%
바이오섹터 ETF(IBB)	+0.59%	미국 국채 ETF(IEF)	-0.31%
헬스케어 ETF(XLV)	-0.13%	하이일드 ETF(JNK)	0.00%
곡물 ETF(DBA)	+0.72%	물가연동채 ETF(TIP)	-0.29%
반도체 ETF(SMH)	+2.33%	Long/short ETF(BTAL)	-0.7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7.93	-0.96%	-0.09%	+1.26%
소재	358.60	+1.33%	+5.03%	+4.26%
산업재	643.34	-0.27%	+3.55%	+2.48%
경기소비재	917.99	+0.71%	+2.98%	+5.47%
필수소비재	570.42	-0.63%	-0.58%	+2.37%
헬스케어	1,060.41	-0.12%	+1.25%	+1.67%
금융	438.87	+0.32%	+3.92%	+1.04%
IT	1,332.39	+0.83%	+3.95%	+7.99%
커뮤니케이션	161.20	+0.37%	+2.01%	+3.10%
유틸리티	292.92	-0.15%	-1.40%	+1.61%
부동산	225.41	-0.11%	+1.08%	+4.6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조정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87%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16 계약)에도 불구하고 보합인 286.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3.6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 및 중국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런데 이 중 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은 많은 부분 알려진 내용이며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미 증시 오후 들어 차익 매물 출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오늘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또한 미국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도 전일 한국 증시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차익 매물 출회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낮아진 점은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지수 부진, 유럽 서비스업지수 개선

3 월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9.7) 보다 둔화된 56.1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신규수주가 전월(65.2) 보다 크게 하락한 59.0 으로 발표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 외 가격지수(54.4→58.7), 고용지수(55.2→55.9)는 상승 했다.

3 월 미국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고용자수는 전월(19.7 만 건)은 물론 예상치(18.4 만 건)을 크게 하회한 12.9 만 건에 그쳤다. ADP 는 이에 대해 서비스업종은 고용이 증가 했으나, 제조업 고용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 월 유럽 소매판매는 전월 발표치(mom +0.9%)보다는 둔화되었으나 예상치(mom +0.2%) 보다는 개선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2.8% 증가했다.

3 월 독일 서비스업지수 확정치(54.9→55.4), 프랑스 서비스업지수 확정치(48.7→49.1)은 물론 스페인 서비스업지수(54.5→56.8), 이탈리아 서비스업지수(50.4→53.1) 등 유로존 서비스업지수는 상향 조정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10년물 국채금리 2.5% 상회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재고 증가 여파로 하락 했다. EIA 는 주간 원유재고보고서를 통해 원유재고가 지난 주 대비 724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치(-50 만 배럴) 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하락 요인 이었다. 공장 가동률이 86.4%로 예상치(87.4%)는 물론 그 전주(86.6%) 보다 낮아진 여파로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중국 및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낙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부진한 경제지표 결과로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는 보도가 나오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엔화에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유로화는 유로존 소매판매 등이 개선되자 유로존 경기둔화 이슈가 완화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으며, 파운드화는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코빈 노동당 총재와 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했다. 더불어 중국,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힘입어 10년물 국채금리가 2.5%를 상회했다. 한편, 다음주 국채입찰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강세 영향을 받아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미-중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9% 하락 했으나, 철근은 0.31%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2.46	-0.19	+5.13	Dollar Index	97.115	-0.25	+0.35
브렌트유	69.31	-0.09	+3.08	EUR/USD	1.1235	+0.28	-0.08
금	1,295.30	-0.01	-1.64	USD/JPY	111.5	+0.16	+0.90
은	15.102	+0.27	-1.28	GBP/USD	1.3156	+0.21	-0.25
알루미늄	1,896.00	+0.37	-0.78	USD/CHF	0.9981	+0.02	+0.32
전기동	6,492.00	+1.02	+2.48	AUD/USD	0.7114	+0.61	+0.42
아연	2,930.00	+2.59	+1.49	USD/CAD	1.3343	+0.04	-0.49
옥수수	362.75	+0.35	-2.94	USD/BRL	3.8746	+0.50	-3.02
밀	471.00	+1.51	+0.32	USD/CNH	6.7143	-0.18	-0.35
대두	898.75	-0.14	+1.27	USD/KRW	1134.30	-0.18	-0.02
커피	95.35	+4.04	+1.60	USD/KRW NDF1M	1133.66	-0.22	-0.38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522	+4.82	+15.58	스페인	1.136	+2.30	+8.30
한국	1.887	+3.70	+4.70	포르투갈	1.266	+1.60	+1.20
일본	-0.045	+1.70	+2.20	그리스	3.643	-3.70	-12.60
독일	0.008	+5.70	+8.90	이탈리아	2.539	+1.70	+8.80